

돌아갈 내 고향

My Home to Return to

누가복음 15:11-2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1월 7일 설교

¹¹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¹²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¹³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¹⁴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¹⁵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¹⁶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¹⁷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¹⁹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²⁰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²¹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²²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²⁴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친구 이야기

제가 대학 일 학년 때니까 벌써 서른 해나 되었네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어느 조용한 오후에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낯익은 찬송가였습니다.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그 끔찍한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에 들어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아직 멀었는데 무슨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남자 소린데 세상에, 그 높은 소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올라갔습니다. 일 절을 끝내더니 아멘 안 하고 다행히 이 절로 넘어가는데 들을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으니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겠지요.

음대 신입생이었는데 가까이 지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열 다섯 해 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 뉴저지에서 만나 밥을 같이 먹었는데 졸업하고 열 몇 해만에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나갔는데 이 친구는 혼자 왔습니다. 부인이 몇 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얼굴이 완전 반쪽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했습니다. 십 오 년 만이지요. 지금 서울 잠실의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지휘도 하고 지난해에는 늦깎이로 목사 안수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가서 재혼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 십 년이 넘도록 아이를 안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미국 올 일이 있거든 아들 셋 둔 나한테 교육을 좀 받으라 했더니 자기는 이대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교육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도 필요 없느냐 물었더니 기도는 해 달래요.

그런데 그 때 노래 부른 일은 기억을 못 합니다. 하긴 노래가 전공인데 기숙사 복도에서만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천사가 부르는 줄 알았다 하면서 요즘도 소리가 그렇게 예쁘게 나느냐 물었더니 소리는 오래 전에 갔다 하면서 대뜸 제 눈이 아직도 예쁘지 물어 보더라고요. 새까만 뿔테 안경을 쓴 제 눈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깨달음이 옵니까? 칭찬은 칭찬을 낳는다, 가는 말이 아부라야 오는 말도 아부다. 그래서 제 눈도 오래 전에 갔다 그랬지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야 위로가 될 것 같아 한 말이니까 그저께 말씀 그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지요.

따뜻한 집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뭐가 그리십니까? 따뜻한 게 그리지요. 청년 시절에는 카페 같은 게 생각날 거고 술집이 생각날 사람도 있겠지만 따뜻한 곳 하면 아무래도 어딴니까? 집이지요. 추울 때는

그저 따뜻한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은 참 놀라운 곳입니다. 모두가 아늑하고 따뜻한 그 기운 덕에 살아가면서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집 좋은 줄 언제 깨닫습니까? 없어지면 깨닫습니다. 사람이 늘 그래요.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방 된다고 다 집입니까? 가족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기가 집입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그럼 더울 때 시원한 곳 찾는 거나 추울 때 따뜻한 곳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면 그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는 건 몸입니다. 마음은 어디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추울 때는 몸도 물론 따뜻한 곳을 찾지만 정말 따뜻한 곳을 찾는 건 마음입니다. 몸보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난방 잘 된 건물에 있어도 거기 사람이 없고 정이 없으면 썰렁합니다. 반대로 난방이 좀 안 돼도 사랑이 있으면 따뜻하지요.

텔레비전 광고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걸 광고할 때 보면 시끄러워요. 얼음과자를 사 먹으라, 어디로 피서를 오라, 음악도 말도 다 아주 야단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겨울날 따뜻한 걸 광고할 때 보면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음악도 클래식만 나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달라 그렇습니다. 따뜻한 걸 찾는 일은 인간의 본질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울 때는 마음이 한 곳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이지요. 왜요? 집은 따뜻한 곳이니깐요. 집과 더불어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이 또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집이나 고향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향도 늘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내 고향은 남쪽 바다입니다. 남쪽이니깐 따뜻하지요. 내 고향 북극, 내 고향 시베리아 하면 안 와 닿습니다. 고향은 따뜻하기 때문에 늘 봄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핍니다. “찬 얼음 센 바람은 들지 못 하는” 거기가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워

추울 때 집이 생각나는 것처럼 고향도 추울 때, 괴로울 때 생각이 납니다. 고향을 떠났으니 타향 아닙니까? 타향살이가 힘들 때마다 고향이 생각이 나지요. 아늑하고 포근한 거기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시나 노래를 보면 물새도 동무들도 다 고향에 있고 나만 떠났다 합니다. 그럼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옛날 그 동무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아니지요.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있어도 다들 변했습니다. 고향 산천도 사실 내가 그리던 그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사실 바깥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옛날 집 주소 들고 찾아가도 진짜 고향은 거기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리워합니까? 옛 추억을 먹고살아 그럴습니까?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그리움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 어머니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기억도 못 하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또 어려서는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으니까 그리움이라는 본능이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함께 자란 동무들이나 뛰놀던 산과 시냇가 그런 게 그리기도 하고 학교 동창들 교회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게 따뜻한 고향을 그리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타향살이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웁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고향이 아니고 아직 못 가본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막연합니다. 옛 친구를 만나도 해소가 안 되고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도 다 풀리지 않는 신비로운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울 때 따뜻한 집이 그리지요.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 때,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만날 때 언제나 고향이 그리웁니다.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탕자 이야기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고향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향이 왜 그리운지 고향이 그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나오지요? 보통 고향은 어머니가 등불 켜 놓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좀 달라 했습니다. 참 뻔뻔스럽지요. 아버지 것인데 제 거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벼슬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며칠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그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독립하겠다는 거지요. 이 재산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먼 나라로 간 걸 보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막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삶의 규모가 없습니다. 버는 건 없이 쓰기만 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모르는 무책임이지요. 얼마 못 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독립, 자립 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필요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 책임은 물론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날린 그게 다 아버지 재산입니다. 내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독립하고 싶고 존엄성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다 날리고 알게지가 되는 거지요.

밑바닥까지

얕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닦쳤습니다. 극심한 흉년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가진 것 없어도 어떻게 살았는데 불경기가 되니까, 불경기 정도가 아니지요, 경제 공황이 닦치니까, 모두가 저 먹고살기 바빠 아무도 날 안 챙겨 줍니다.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얼마 만에 굶어 본 걸까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타국에 와서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있을 때는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게 바닥이 났을 때 비로소 끼니를 걸렀습니다.

굶는 게 뭔지, 배고픈 게 뭔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평생을 호강만 한 어떤 분에게 누가 ‘밥이 없어서 굶는다’ 하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걸 왜 굶느냐?’ 하더랍니다. 이 아들도 그랬겠지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실 때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모자랍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평생 안 해 본 게 일입니다. 월 제대로 하겠습니까? 게다가 경제 공황입니다. 제 나라 국민도 실직하는 판국인데 외국인한테 줄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나 구한 게 돼지를 먹이는 일입니다. 돼지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더러운 동물 가운데서도 특히 더럽다고 보는 게 이 돼집니다. 그 더러운 돼지를 치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면 보수라도 많아야 될 텐데 보니까 무보수예요. 그냥 잠만 재워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먹을 건 안 줍니다. 그래서 배가 하도 고파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돼지만 주고 저한테는 안 줍니다. 그 더러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 버린 거지요.

위기의 기회

그런데 이 비참한 형편이 이 사람에게 그리움을 주었습니다. 본능을 일깨운 거지요.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 그 생각이 한 가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아래는 더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위를 보게 되지요. 거기밖에 볼 데가 없으니까요.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위를 보았습니다. 두고 온 고향 집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지금 모든 신경은 꼬르륵거리는 배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럴지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거긴 머슴들조차 배부르게 먹습니다. 난 아들입니다. 아, 그때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지금은 돼지가 먹는 그 천한 음식도 못 얻어먹는 처지지만 한 때는 머슴들조차 배부르게 먹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고향 집에 가면 지금도 머슴들까지 잘 먹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못 갑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배 좀 고프다고 다시 돌아갑니까? 게다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무슨 낮찍으로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살아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지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가겠지요?

그런데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던지고 무조건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초라해도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한 순간 이 아들은 기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나 좋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가

내가 아쉬우니까 그 때가 좋았지 하고 돌아갑니다. 옛날 나옴이도 흥년에 나 먹을 것 남 주기 싫어 다 챙겨 이 민을 갖지만 그 나라가 흥년이 들고 조국에는 풍년이 왔다 하니깐 나도 좀 주시오 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둘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머리를 들이입니까?

기회주의자

집 나온 아들도 사람이라 미안한 줄은 압니다. 지은 죄가 있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머슴으로 받아 달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을 미리 연습도 해 보았습니다. 머슴으로라도 받아만 준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체면도 중요하고 아버지한테 지은 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저 멀리 나타난 아들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로 떠났지만 지금은 피골이 상점했을 것이고 신도 못 신을 정도니 행색은 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버지의 눈, 사랑의 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던 눈이었기에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돼지똥 냄새가 아직 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머슴으로 써 달라고 연습한 대사를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다릅니다. 아들이 하는 말 다 듣지도 않고 머슴을 불러 시킵니다. “제일 좋은 곳을 갖고 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아들은요, 맨발에 누더기 걸치고 돼지똥 냄새가 나도 아들입니다. 재산 다 날려도 아들입니다. “애들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아버지가 흥분했습니다.

가만 들여보니 아들이 떠난 후 집에 잔치라고는 없었습니다 (29). 아들이 하나 없어졌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아들이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재산 다 날렸으면 어쩔고 거지가 되면 어떨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또 어떨습니까? 기회주의? 아버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좋습니다. 좋아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 때 잔치 안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기회주의가 맞습니다.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주의입니다. 그러니 뭘니까? 기회주의는 기회주의인데 거룩한 기회주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늘 저질러 놓은 뒤에 깨달습니다. 미리 알아 피하면 참 좋겠지만 사고 치기 전에는 모르고 “와장창” 한 다음에 “아차” 합니다. 늘 그래요. 그럼, 깨달은 뒤에는 자존심이 있으니 그냥 버티겠습니까? 아니지요. 돌려줘야지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한 번 떠났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버티야지 어떻게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꼭 하나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한국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 그런 정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사람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참 고향을 두고 떠난 타향살이라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집 떠난 아들이 재산 다 알아먹고 알거지가 되고 더러운 돼지랑 살고 그러면서도 못 먹어 죽을 형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다 알아먹고 돼지랑 부비며 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 사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 그 자체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에 이런 저런 어려움, 크고 작은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니까? 고향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이 있다는 겁니다. 타향살이를 하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역설이지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는 머슴들도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자식 아닙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타향살이이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생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

습니다. 고향이 있으니까요. 고향이 있는 줄 아니까요. 이거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곳은 그저 난방 잘 된 우리 집,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집 떠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가출한 상태라는 걸 알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 바로 거기라는 걸 하나님 은혜로 알았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 바깥을 돌아 다닐 때도 조금 뒤 돌아갈 집이 있으면 고생도 낭만입니다. 좀 추우면 어떨습니까? 이제 곧 따뜻한 집으로 갈 건데요. 그렇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떨겠습니까? 고생이 그냥 고생이지요. 그저 괴롭습니다. 집이 없어 노숙을 하는데 낭만은 무슨 낭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난 줄 모르는, 아직 고향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직은 돈이 좀 있거든요. 돈이 있으니 남보다 쉽게 살지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고향에 돌아갈 가능성도 그만큼 작습니다. 오히려 안됐지요. 부러워하는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도 멋지게 삼니다. 멋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맞이합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 찬 바람 좀 불어도 낭만이니까요. 그러니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오히려 고향 생각을 더 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가 나오지요. 찬송가 가사처럼 풍량이 불어 닥치면 그 풍량 때문에 배가 더 잘 달리니 감사합니다. 조금 전 부른 노래처럼 남들은 지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되어야 됩니다. 고향을 향해 가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또 뒷걸음질을 치다가 하나님이 애야 왜 그러니 하시면 마지 못해 또 앞으로 몇 발자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따뜻한 교회

교회가 웬니까? 교회는 탕자가 모인 곳입니다. 누구는 돼지똥 냄새도 나고 누구는 소똥 냄새도 나고 누구는 해어진 옷을 입었고 누구는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냄새 안 나는 사람은 나뿐이지요. 난 왜 냄새가 안 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신통하게 만드셨는지 제 냄새는 못 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 냄새, 내 발 냄새를 늘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냄새나고 꼬죄죄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뭘 합니까? 같이 걸어가지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찌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은혜 그거 하나 바라보며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도 같이 고프고 은혜도 같이 사모하니 길벗이 됩니다. 고향 가는 길 같이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남들이 보면 고난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고향 가는 길을 같이 가니 감사가 넘칩니다. 심 몇 년에 목소리 한 번 들어도 귀하고 힘이 나는데 이렇게 매주, 한 주에도 몇 번을 보고 힘을 얻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찬 바람이 더 불 터인데 그럴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집도 생각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고향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가는 길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그래, 맞아, 여긴 타향이지, 난 고향이 따로 있지, 그걸 확인하면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맛보고 나도 고향 길 잘 가고 내 식구 내 이웃 내 친구도 잘 인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수경 목사)